

100대 기업 CEO가 보는 하반기 경영 기상도

지난해 3/4분기 이후 급속한 성장세를 보여왔던 국내경기는 최근 미국경기의 회복세 둔화 가능성, 국내·외 금융환경의 불안 등으로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면서 하반기 및 내년도 경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.

이에 LG경제연구원과 동아일보는 기업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하반기 및 내년도 국내외 경제전망과 그에 따른 각 기업의 사업운영 방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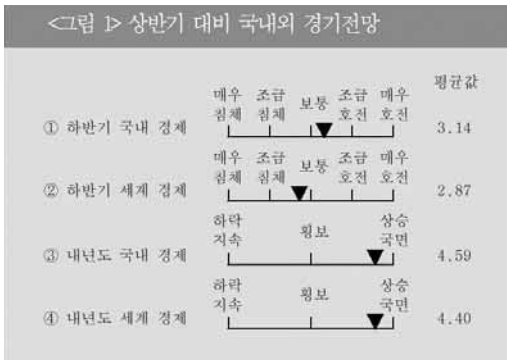
100대 기업 CEO들은 올 상반기에 사상 최대의 경영실적을 올렸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미국경제 침체와 환율하락, 노사불안 등 각종 경제 악재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경제를 비교적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그러나 세계경제에 대해서는 비관론이 다소 우세했다.

설문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첫째, 하반기 및 내년도 국내·외 경제에 대한 전망, 둘째, 국내·외 금융환경에 대한 전망, 셋째, 국내·외 사업운영에 대한 전망 등이다.

국내·외 경제전망

● 하반기 경제

100대 기업 CEO들은 자기 기업의 실적뿐만 아니라 하반기 한국경제 전체의 전망에서도 비교적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하지만 하반기 세계경제 전망에 대해선 △상반기보다 침체할 것(38.6%) △상반기와 비슷할 것(35.7%) △조금 호전될 것(25.0%) 순으로 답해 비관론이 우세했다.



● 내년 국내·외 경제 : 회복 혹은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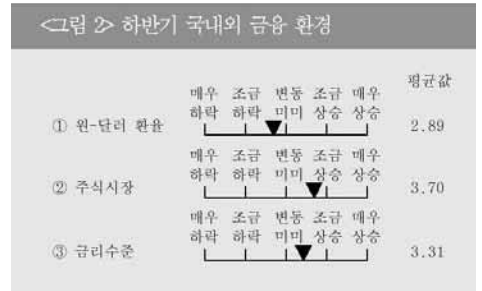
내년도 국내경제에 대해서는 △경기 상승국면으로 전환(61.4%)으로 올해보다 내년 경제여건을 더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.

내년도 세계경제에 대한 질문에서는 △경기저점에서 회복(60.2%) △경기 상승국면으로 전환(39.8%)의 순으로 나타났다.

하반기 금융환경

● 환율변동 전망 엇갈려

환율에 대한 전망에서는 조금 상승(원화 가치 하락)할 것이다(32.5%), 환율 변동이 미미할 것이다(24.1%), 더 하락(원화 가치 상승)할 것이다(43.2%)로 환율 변동에 대한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다.



● 금리, 주가 소폭 상승 전망

하반기 금리와 주가에 대한 전망을 물었다. 하반기 국내 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금리 변동이 미미할 것이다(56.6%), 조금 상승할 것이다(37.3%)의 전망이 응답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, 응답자의 6.0%만이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하반기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상승할 것이다(68.7%), 주가변동이 미미할 것이다(21.7%), 더 하락할 것이다(6%),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(3.6%)의 순으로 나타났다.

● 자금 조달 낙관

응답 기업 대다수는 자금 조달을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100대기업들의 하반기 자금조달은 금융기관을 활용하는 간접금융시장 보다는 회사채 발행 등 직접금융시장과 내부자금을 활용하는 비중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.

신조어

프리터

10년 이상 장기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일본의 젊은이들이 만들어 낸 용어로 자유롭다는 의미의 '프리'와 '아르바이트'의 합성어로 만들어 졌다. 말하자면 일정한 직업이나 아르바이트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일 자리를 옮겨다니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.

국내·외 사업전망

●내수시장 전년 동기 대비 나아질 전망



내수시장 매출 전망을 산업별로 나누어 분석해보았다. 전년 동기 대비 매출신장률은 △운수장비 18.8% △건설업 18.25% △통신서비스 16%의 순으로 나타났다.

그리고 상반기 대비 매출신

장률은 △건설업 22.4% △제지/출판업 10% △통신서비스 9.3%의 순으로 나타났다.

하반기 내수시장에서 전년 동기 혹은 상반기 대비 매출 신장률이 가장 큰 산업은 건설업으로 나타났다.

●해외시장도 신장 기대

해외시장 매출전망을 산업별로 분석해본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매출신장률이 큰 산업은 △전기/가스 25% △전자/통신 23.6% △건설업 21.3%의 순이었으며, 상반기 대비 매출신장률이 큰 산업은 △전기/가스 50% △전자/통신 20.4% △기계/장비 15%의 순으로 나타났다.

하반기에는 내수시장, 해외시장 구별 없이 전년 동기 대비 뿐만 아니라 상반기 대비 매출이 모두 신장 될 것이며, 내수 시장에서는 건설업이, 해외시장에서는 전기/가스, 전자/통신업의 신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●이익 큰 폭 개선 기대

전년 동기 대비 올 하반기 이익에 대해서는 조금 향상될 것이다(53.7%), 매우 향상될 것이다(26.8%), 비슷한 수준일 것이다(13.4%)의 순으로 응답했다.

●공장 가동률 향상 기대

하반기 공장가동률은 전년 동기 대비 비슷할 것이다(49.3%), 조금 향상될 것이다(40.8%), 매우 향상될 것이다(8.5%)로 나타나 전반적으로는 공장 가동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특히 산업별로는 운수장비, 고무/플라스틱, 전기/가스업의 공장 가동률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●재고수준 소폭 개선 기대

하반기 재고수준은 전년 동기 대비 비슷할 것이다(56%), 조금 낮아질 것이다(28%), 매우 낮아질 것이다(10.7%)의 순으로 나타났다. 하반기에는 매출신장에 따라 평균 재고수준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. 산업별로는 고무/플라스틱, 제지/출판, 1차금속의 순으로 재고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전망했다.

●신규인력 다소 숨통

하반기 인력채용 계획은 전년 동기 대비 비슷한 수준이다(79.5%), 높아질 것이다(12.8%), 낮아질 것이다(6.4%)의 순으로 나타났다. 경제회복이 기대되는 가운데서도 국내의 경제의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전년 동기 대비 비슷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. 산업별로는 운송서비스, 전기/가스, 1차금속의 순으로 전년 동기 대비 인력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하반기 인력채용을 늘리겠다고 응답한 기업들의 신규채용과 경력채용을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신규채용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9.2%, 경력채용은 3.6%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.

●설비투자 R&D투자 소폭 증가

경기의 선행지수로서 향후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나타내주는 설비투자와 R&D투자계획에 대해서 예년 수준이다(46.8%), 조금 증가할 것이다(34.2%), 매우 증가할 것이다(6.3%)의 순으로 나타나 평균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산업별로는 비금속광물, 1차금속, 정유/석유산업의 순으로 전년 동기 대비 설비투자와 R&D 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를 국내와 해외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국내는 전년 동기대비 16.7%, 해외는 5.7%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에 보다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